

‘영산강 수문 너머, 생명과 공존의 미래를 만들자’ <1>영산강 하굿둑 44년의 기록

“물고기는 없고 악취 뿐, 예전 강이 아니에요”



어종 줄어 내수면 어업 붕괴 마을 주민 떠나고 소멸 위기 수질 악화... “썩은 펄층 10m” “영산강 살리려면 해수유통뿐”

‘남도의 젓줄’ 영산강은 44년째 가로막혀 있다. 1980~90년대 농업·산업화의 구심점이었던 하굿둑 일대는 2000년대 이후 쇠퇴와 환경오염화로 시름하고 있다. 영산강 등 4대강의 해수유통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4대강 중 유일하게 낙동강은 상시개방으로 기수역 등 생태계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 하굿둑 개방은 단순 자연회복을 넘어 인간과 생명이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룰 핵심 과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강과 바다를 가로막던 독을 허물어 생태복원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영산강 수문 너머, 생명과 공존의 미래를 만들자’라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하굿둑의 환경변화와 개방 요구, 갈등없는 공존화 모색,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의 해수유통, 환경복원과 생태관광 방안을 10편에 걸쳐 심층 보도한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양효식 정책위원장이 최근 영산강 하굿둑을 바라보며 하굿둑 상시개방을 촉구했다.

“비가오면 강물을 따라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떼지어 올라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 거주하는 김춘호(65)씨는 과거 영암 삼양읍 용포리 마을 인근 갯벌에서 조개와 게, 장어를 잡으며 생계를 꾸려왔다. “죽대 들고 물고기를 잡고, 갯벌을 밟는 감촉이 좋았죠. 독이 없을때 갯에 살던 뱀장어들이 바다로 오고 갔고, 물고기가 넘쳐났죠, 수질도 깨끗해 물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김씨가 기억하는 하굿둑이 생겨나기 전 영산강 하구 연의 모습이다. 하굿둑이 없던 영산강 끝자락은 비릿한 염기가 생명의 순환을 이끌었다. 영산강을 품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기수역(汽水域)에서 생계를 꾸렸고, 고향 마을엔 활기가 넘쳤다고 한다. “지금은 고향마을에 형님만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떠났어요. 서울로 올라갔다가 저는 다시 목포로 내려왔지만,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1981년 하굿둑 착공과 함께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졌다. 강과 바다의 물길이 끊기자 염분을 따라 올라오던 웅어, 송어, 농어 등 회귀성 어류는 사라졌고, 어획량은 급감했다. 그는 현재 목포에서 목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냄새가 심해서 못 있어요. 예전 물이 아니에요.”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박종기(75)씨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하굿둑의 실상을 고발했다. 그는 영산강물을 가뭄 만든 금호호·영암호에서 녹조와 적조가 상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의 터전은 금호호·영암호의 한복판인 해남 산이면 상봉마을. 이곳 주민들 대부분이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고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녹조도 문제고, 펄에서 냄새가 올라오고, 정수장 냄새도 심해요. 여름이면 썩는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온다”고 꼬집었다. 하굿둑 인근 유역에서는 여름철 녹조 경보가 상시 발령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겐 일상이 됐다. 그는 “하굿둑 위에 가보면 물이 흐르질 않고 가만히 있죠. 옛날 같으면 배도 지나다녔을 강이 이젠 썩어간다”며 안타까워했다.

영산강 하굿둑은 1980년대 농업 기반 확충, 1990년대 산업화와 제조업 육성의 구심점이었다. 수자원 확보와 간척지는

지역 경제성장의 상징이었고, 토목개발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환경오염 누적과 농업·산업의 동반 쇠퇴는 되레 지역소멸 위기를 앞당겼다. 어민 공동체는 해체됐고, 인구는 줄었으며, 하굿둑을 중심으로 삶터와 일터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인근 나주시나 무안군 등의 일부 마을은 과거 어업 중심의 경제 기반을 잃고 고령화와 빈집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하굿둑 건설 이후 나타난 변화들을 통계를 제시한다. 그는 “유속이 줄고 퇴적층이 증가하면서 수질은 나빠졌고, 어류 서식처는 붕괴됐다”며 영산강의 자정작용은 사실상 마비됐다고 진단했다. 물길이 멈추면서 수심은 얕아지고, 바닥에는 썩은 펄이 구간마다 다르지만 최대 10m 이상 쌓여 있는 곳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냈다. 전 교수는 “하굿둑 이후 기저 퇴적층의 오염은 장기간 지속되며, 강의 바다부터 썩어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영산강유역 농촌용수 관리방안’에 따르면, 영산강 하류는 퇴적물 내 유기물질 농도가 상류 대비 4~7배에 달한다. 이는 하굿둑이 강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유속이 줄고, 오염물질이 하

류에 지속적으로 퇴적돼 생태계 질서가 무너졌다는 분석이다. 물의 흐름이 멈춘 강은 정체되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퇴적층은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한 채 오염을 축적했다고 봤다.

결국 영산강이 생명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해수유통’에 답이 있다는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영산강하구통합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하굿둑 시범 개방 이후에는 BOD, T-N, 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또한 염생식물의 회복과 더불어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회귀성 어류의 유입 가능성도 포착됐다. 이는 단순 이론을 넘어, 실제 수문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회복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평가된다. 물길을 열면 영산강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굿둑 개방은 생태 회복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질 개선과 지역 공동체 복원의 시급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영산강은 ‘남도의 젓줄’이란 이름과 달리 점차 생명의 강으로서 기능을 잃고 있다. 수계연결 차단으로 어종감소로 내수면 어업이 붕괴됐다. 유입하천 수질 역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잦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영산강의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따르면, 1998

년 환경부 조사에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평균이 4.5mg/L였지만, 2020년엔 7.9mg/L로 급등했다. 이는 ‘4급수’에 가까운 수질이다. 그 사이, 하굿둑을 중심으로 인구는 줄었고 어촌 공동체는 해체됐다.

김춘호 씨는 “영산강에서 고기 잡던 나주 사람들이 해남으로 이주했지만, 거기 도 물고기가 없더라”고 전했다. 고통은 이주로도 치유되지 않았다.

간척지 농업 역시 돌과파가 아니다. 김춘호 씨는 해남의 60만평 간척지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험했지만 “소금기 섞인 땅에서는 미질이 나빠지고 수확량도 줄었다”며 “농촌진흥청도 간척지 쌀이 가장 품질이 낮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간척지 실태를 알리기 위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부기관에 알려 나갔다. “해수유통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전승수 교수도 같은 입장이다. 그는 “하굿둑 축조 이후 생태계는 회복불능 수준으로 망가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의 하구 복원 사례를 예로 들며 “기저 퇴적층의 오염은 장기간 지속되며, 유속 확보 없이 생태복원은 불가능하다. 지금 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글·사진·김성수 기자

“생명 잃은 영산강 살리려 시민들 행동에 나선 것”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양효식 정책위원장

영산강 주변 주민 300여명 동참 “자연성 회복 위해 해수유통을”

“어릴 적, 우리는 쌀을 먹지 못했습니다. 쌀농사를 짓는다는 말에 다들 환호했죠. 그게 바로 영산강 하굿둑의 시작이었습니다.”

양효식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생태학을 전공한 환경운동가다. 현재는 광주·전남환경단체인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하굿둑 개방과 수질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 힘쓰고

있다. 그에게 영산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다. 태어나 자라고, 시대의 변화를 함께 겪어온 터전이자 기억이다.

“처음 하굿둑 착공은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죠. 국가 사업이고, 쌀이 부족했던 시절이다 보니 대부분 환영했어요. 반대라는 개념도 없었고, 정보가 일방적이었어요. 지금처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던 때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현실은 달라졌다. 강은 흐르지 않게 됐고, 자연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이 죽고 있어요. 흐르지 못하니 오염이 누적되고, 바닥에는 전이층이 쌓여 여름이면 악취가 심합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죠.”

김 정책위원장은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오염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그는 “보가 생기면서 비점오염원인 하수, 축산분뇨, 농약 등이 유입돼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부영양화가 극심해졌어요. 녹조 현상도 흔해졌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수질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 “퇴적물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도 많이 발생

한다. 물속 유기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그는 “물이 흘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하구를 개방해 물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면, 지금 쌓인 오염물도 자연스럽게 제거된다. 바다도 마찬가지로요. 바다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구에서 유기물이 들어가야 생명체가 살아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산강의 미래를 ‘생산적 생태공간’으로 그린다. 수질을 개선하고, 해수유통을 통해 수산 자원을 회복하며, 나아가 지역경제와도 연결되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산업화 시대를 지났다. 인구도 줄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더는 과거처럼 ‘쌀’ 만을 위해 자연을 막을 수는 없다. 이제는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는 2016년 출범해 1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영산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3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단체의 목적은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하굿둑 개방에 입을 모으고 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강은 스스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말해야 한다”며 “영산강 하굿둑이 열리고, 강이 다시 흐르는 그날까지 저를 비롯한 회원들은 멈추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